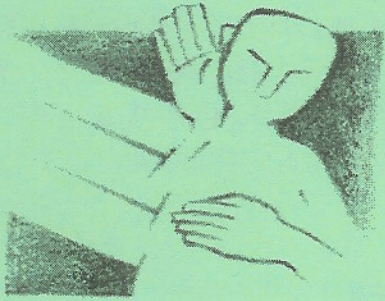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2주일(위령성월)
 제27권 50호 (다해) 2007·11·11

[묵상]



영원

잠에서 깨어나 하늘을 숨쉬고

바람소리를 듣고도

그 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오전 7:30
	주일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먼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3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 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오후 1:00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가정의 날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강요한과 강리파, 강명숙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김충길 바오로, 강금전 모니카와 조은하 유리안나 성영님 엘리사벳과 유진 로렌스와 호재 시몬 최기남 야고보와 옥희 데레사, 김은정 크리스티나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주 일 낮 미사	(연)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규형 콘잘레스, 이은완 야고보, 박창민 바오로와 안희녀 수산나 켄트 매스틱, 이웅심 요셉과 김서운래, 김영수 데레사 강경숙 잼마, 안준환 미카엘, 김의석 벨라도, 이승철
	(생) 김씨내 클라라,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이종민 요셉 김충섭 마틴, 오진 베드로가정, 장수창 요한과 장주란마리아 김형순 다니엘, 김바오로와 유선, 프란치스코, 리처드, 요한 송호민과 김나영가정, 박진숙 엘리사벳 요셉/안나회 온천관광 봉사자들과 기부자들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2Maccabees) 7,1-2.9-14
화답송	◎주여, 깨어나 당신을 뵈옵으로 내 흠족하리다. <전례성가 93, 연중 제32 주일 다해> ○야훼님 들으소서, 죄없는 자의 사연을, 내 부르짖는 소리를 굽어들으소서, 거저없는 입시울로 애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내 걸음은 곳곳이 당신 길만 따르옵기, 두다리 는 비틀거림이 없삽나이다. 응답이 계시었기, 주여 당신을 부르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어 이 말씀을 들어 주소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당신 날개 그늘아래 이 몸을 숨겨주소서. 그러나 나는 외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오리다. 깨어나 당신을 뵈옵으로 흠족하오리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2,16-3,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죽은 이들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복 음	루카(Luke) 20,27-38<또는 20,27.34-38>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83	349
봉헌	259	259,178
성체	424	303,295
파견	357	234

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으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져, 더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예수 잔당으로 몰려 체포 될 것을 두려워하며 골방에 숨어 떨고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선포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용감히 나선 것이다. 예수께서는 공생활 중에 말씀하신대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보았고, 대화도 나누었으며, 음식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을 가르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중언하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요 메시아시며,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께서 곧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행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 그러나 기득권자들과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이고,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는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대답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이웃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삶이 비록 힘겹고 고달프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조금만 바꾼다면 좀더 기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이다.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얼굴의 생김새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표정은 바꿀 수 있다. 하늘의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계속-CBCK 제공>

부활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국 천주교회의 성인 유대철 베드로(1826-1839)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순교를 했다. 그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역관(歷官)이었던 아버지 유진길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누나는 천주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1839년 기해(己亥)박해가 일어나고 그의 아버지가 체포되었다. 그러자 유대철은 순교하기로 결심하고 관가에 자수를 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문을 견디어 냈다. 한번은 형리가 허벅지의 살을 뜯어 내며 배교를 하면 살려 주겠다고 희유를 했다. 그러자 어린 유대철은 “저는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화가 난 형리는 이번에는 화로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숯덩이를 입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유대철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 그는 총 14차례의 고문과 100여 대의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결코 배교하지 않았다. 유대철 베드로는 드디어 1839년 10월31일 교수형을 받고 순교를 했다. 모든 순교자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오늘 복음에서 사두가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다. 부활 후의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결국 인생이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만약 인생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너무 슬프고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현세에서의 순간적인 행복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느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교회의 핵심 진리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종교 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김교복 래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변혜경 율리아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린스 남 2,4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지난 주간 합계: 3,995단 ☞ 총 합계: 214,336단

11월 위령성월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간다는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 즉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 ◆ 레지오 마리에 주회 시작했습니다.
 - 순교자의 모후 Pr. : 수요일 오후 8시(자매)
 - 바다의 별 Pr. : 수요일 오후 8시(형제)
 - ※ 약 두달 후 선서식을 통해 정식으로 레지오가 창단됩니다.

- ◆ Homeless People 돕기 두번째 행사
 - 일시: 11월11일(오늘주일) 오후 5시30분
(음식 봉사자들은 오후 2시까지 집합 바람)
 - 장소: 롱비치 Project Achieve Center
☎ 310-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 일시: 11월 11일(오늘주일) 아침/낮 미사 후, 친교장
 - 대상: 7세부터~, 계란 흰자의 알러지 없는 분들

- ◆ 백삼위 푸르실리스따 단체촬영 및 울뜨레아 11월 정기모임
‘남가주 푸르실리스따 25년사’ 제작에 필요한 사진촬영입니다. 푸르실리스따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로 11월 울뜨레아 모임을 한 주 앞당깁니다.
 - 일시: 11월18일(주일) 낮미사 후 즉시

- 장소: 성전에서 단체촬영 후, 강당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울뜨레아 모임을 갖습니다.
-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의 주일학교 등록과 출석에도 적극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부모님은 등록서류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소년 분과위원장 김순희 모니카(☎310-850-6253)

- ◆ 주일학교 기금 \$2,300 전달
지난 9월30일 우리 본당에서 거행된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때 대건회와 원서회가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한 음식부스에서 생긴 수익금 \$2,300을 주일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 이웃에게 전교합니다.
 - 복음화분과에서는 가톨릭 교리교육을 거쳐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323-774-2004 홍석철 모세 복음화 분과위원장

- ◆ 전 신자 대상 “은혜의 밤”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29일(목)~30일(금), 성전
 - 찬미: 오후 7시 · 미사: 오후 7시30분
 - 특강: 오후 8시~9시30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 11일 : 토런스 서 1반 (옥개장 \$3)
 - 11월 18일 : 토런스 동 2반 (오탱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구분엽	국세찬	권진열	김관기	김기정	김상억
	김선재	김선희	김양금	김옥보	김원모	김인열	김종선
	김준호	김철수	노천수	모은기	문충한	민기남	박수익
	박정희	박준구	방정복	배기엽	신경훈	신철규	양은순
	엄영희	오수인	오태환	유영균	유인섭	유정복	유태현
	육재민	윤희동	이경용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렬
	이상규	이연행	이영희	이은록	이재용	이정희	이진행
	이호미	장수창	장숙환	장영우	최기남	최길주	최미열
	최석원	최의수	한소옥	한연만	한창주	한혜숙	황학수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김아가비도				
	합계 : \$6,325						
	미사헌금 : \$2,581		2차헌금 : \$1,466				

성전헌금	강순복	구분엽	국세찬	권진열	김관기	김기정
	김선재	김양금	김옥보	김원모	김인열	김준호
	김철수	노천수	모은기	문충한	민기남	박수익
	박정희	박준구	배기엽	신경훈	오수인	오태환
	유영균	유정복	유태현	육재민	윤희동	이경용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렬	이상규	이영희
	이은록	이재용	이정희	이호미	장수창	장숙환
	장영우	최기남	최길주	최미열	최의수	한연만
	한혜숙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김아가비도		
	합계 : \$4,995					
	감사헌금 : 최태훈, 장수창, 송마이클			특별헌금 : 임종택		

공지사항

◆ 중고 휴대폰 수집

대건회가 환경보호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중고 휴대폰을 모읍니다.

☎408-3175(천광락 야고보) ☎213-435-1600(김우용 시몬)

◆ 미주가톨릭 다이제스트 구독신청 다시 해주십시오.

● 뜻밖의 사고로 구독신청명단을 분실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한울리아나 주간에게 구독 신청한 교우들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201-289-9939(미주다이제스트사 구독신청 직통)

⊗ 감사합니다 ⊗

성전 장례를 책꽂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성가책은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해 주신 교우님과 함께 지난 한 달여 공사 해준 오세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소식

◆ 제 26회 추수감사절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 합동 야외미사 및 2부행사

- 1부 미사: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엘도라도 팍
- 미사 주제: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2부 행사: 각 본당 대항 가장행렬과 줄다리기

- 가장행렬: 성서에 바탕을 둔 내용이면 됨
- 줄다리기: 참가인원 20명(남성15명, 여성5명)
- 주관: 성 마태오 한인천주교회 ☎ 818-242-4377

◆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2008년 신입생 모집

- 대상: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 교과내용: 성경 및 신학 일반
-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11월12일~2008년 2월 15일
- 가톨릭 교리신학원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11월29일: 기초강좌와 크리스마스 주제
- 12월27일: 기초강좌와 뉴이어(새해) 주제
-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신청: 미주 가톨릭방송 ☎213-385-5564

◆ 꽃동네 제2차 구약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12월 2일(주일) 오후2시~ 9일 오후 1시(7박8일)
- 대상: 일반 신자들, 참가비: \$300
- 준비물: 성경, 성가책,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옷, 편한 신
- 신청: 데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명자 테레사 11/9(금), 오후 7시	328-0817		
	2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박선화 안나 11/10(토) 오후 7시, 성당	325-3888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782-1025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종택 베르나르도 11/3(토) 오후 7시	542-5517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11/2(금) 오후 7시, 마포주목력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조은아 율리아나 11/13(화) 오전 11시	533-0208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박명자 마가렛 11/16(금) 오후 7시30분	326-5867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현창 야고보 11/9(금) 오후 7시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이복임 엘리사벳 11/9(금) 오후 7시, 성당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이병우 마리노 11/10(토) 오후 7시	891-331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오영섭 스테파노 12/1(토) 오후 7시30분	891-3688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11/9(금) 오후 7시30분	541-368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11/9(금) 오후 7시	377-043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11/14(수) 오전 10시30분	265-0495		

그렇게 해보렴... 이번 가을에는

(I) 그렇게 해 보렴, 이번 가을에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이 장엄(莊嚴)축복의 계절에
나의 마음을 놓아 보렴.

놓아버린 그늘에 내려앉은 낙엽
아우성치며 달려드는 상념(想念)의 시립
한 사발 마셔보렴.

건들지 않아도 부서져 버리는 가슴
떨리게 그만 내버려 두고 차가운 바람에 한숨
날려 보렴.

고달프면 고달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통곡 놓아 보렴.

말로도 글로도 표현이 안 되는 이 계절에
말을 다듬고 마음을 깊이 하여
영혼을 하늘에 놓아 보렴.

(II) 낙엽 한 송이

가을이 왜 이리도 처절히도 아름다운가.

가을은 그냥 밟히기 때문인가.

가을은 얼굴을 붉힐 줄 알기 때문인가.

그대는 아름답다고 거울 가에 가는가.

거울 속에 반짝임 잃어버린 눈동자 보는가.

그대는 아직 떨어지지 못하고 달려 있으며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서고 있는가.

돌아서서 남을 밟는 일에
안 보이는 곳에 뽀족 돌 모아보고
숨소리 고르지 않는 마음이 구르고

떨어지는 낙엽보다 못한
나도 구르고 너도 구른다.
바람에 몸 맡기지도 못하는

(III) 낙엽은 떨어지는데, 알지 못한다. 너는

사람을 사람자체로 보지 못하고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는 자 인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보는가.

너희 가까운 사람이 잘되는 것을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너의 생각만이 옳고 정의롭다고
남이 너와 같은 생각을 가져 주기를,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가졌는지를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항상 걱정하고 있는가.

말과 생각은 겸손, 사랑, 평화를...하며
행동은 어제와 같이 지금도 다시
오만, 기만, 미움, 탐욕, 화냄으로 가는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얼마나 병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P.V.1반 최진수 에우세비오